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P 모건 보고서 원본은 회원사 전용입니다. 원본을 원하시면 kenmin@kocham.org나 office@kocham.org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경제]

- WSJ: 글로벌 경제 호조로 주요 중앙은행들 인플레이 통제 힘들어
- WSJ: 미국인 현금사용 줄면서 ATM 숫자도 준다

#### [금융]

- CNBC: 아시아 주식 오늘 상승세...미 금리 0.25% 인상 발언 탓
- WSJ: 테슬라 주식, 개인투자자에게 더욱 인기

#### [뉴욕]

- Bloomberg: 특정 뉴욕시 Airbnb 호스트, 1백만불 벌금 물어

#### [부동산]

- CNBC: 모기지율 7% 또 넘겼다...인플레이 우려 탓

#### [미·중 갈등]

- JP 모건 보고서: 지정학적 관점 - 미중 갈등의 다음 단계는?
- CNBC: 아이폰 공급업체 Foxconn, 중국에서 떨어진 인도에 공장 준공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유럽중앙은행 관리, “금리 4% 도달할 듯”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돌아오는 업무용 휴대폰...”WhatsApp, TikTok 쓰는 회사 추세 때문”
- WSJ: Macy’s, Best Buy 매출 감소...소비자 인플레이 압박 느낀다
- Reuters: 코스트코, 분기 수익 예상치 미달했다...임의재 수요 둔화 탓
- WSJ: Verizon, 힘든 한 해 넘긴 뒤 임원진 “물같이”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경제]

### WSJ: The World Economy Is Doing Well—This Is Bad News for Central Ban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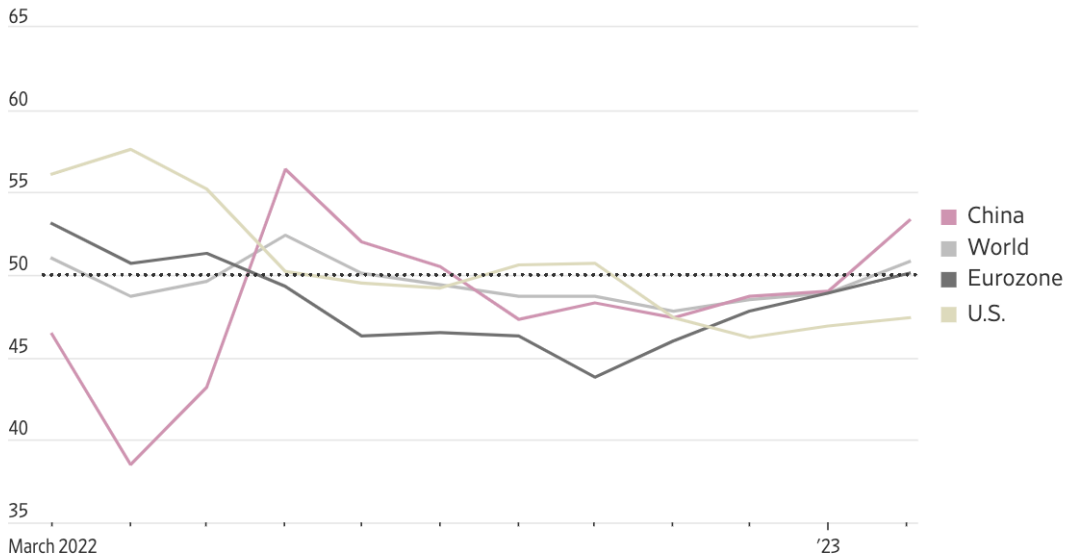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 호조로 주요 중앙은행들 인플레이 통제 힘들어

- 글로벌 차원에서 여전히 차입비용은 오르고 에너지와 식품 비용도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
- 올해 초부터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여 이코노미스트들의 당초 예측에 혼동을 줄 정도다.
- 바로 아래 도표는 주요 지역의 제조 구매 관리자지수다.

### Factory Revival

Global manufacturing output has returned to growth, led by China's reopening.

#### Manufacturing output purchasing managers index



Note: Seasonally adjusted. Readings above 50 indicate an increase in activity, and below that threshold, a decline.  
Source: S&P Global

- 이들 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충분치 않으면 더 올릴 기세다. 인플레이도 이들 지역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하이키 사이클(hiking cycle)이 불과 6개월 전에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이제 막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다.

WSJ 기사

### WSJ: The Number of ATMs Has Declined as People Rely Less on Cash 미국인 현금 사용 방식 줄면서 ATM 숫자 준다

- 현금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ATM 숫자가 줄고 있다. 여전히 현금 사용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겐 도전이다.
- 관련 데이터 회사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9년 미국 ATM은 47만개. 작년 말에 45만1천5백개로 줄었다.
- 더욱이 팬데믹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현금 사용이 줄었는데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가 종이로 전염될 수 있다는 공포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성향 때문인데 이는 젊은이들에게 더 심하다.
- 현금과 수표는 2010년 지불 점유율 42%에서 올해 14%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CNBC: Asia markets rise as private survey shows sharp recovery in China services

### 아시아 주식 오늘 상승세... 미 금리 0.25% 인상 발언 탕

- 월가의 목요일 밤 회복세 직후에 아시아 태평양 금융시장이 금요일 상승세를 보였다.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인 Raphael Bostic가 향후 미 금리 0.25% 폭의 인상을 분명히 선호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 그동안에는 0.5% 인상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우려의 모습을 보였다.
- 여기다 중국의 서비스 부분 활동(Caixin/S&P Global services purchasing manager's index)이 회복되면서 주식 상승세에 한몫한 것. 해당 서비스 지수는 1월에 52.9에서 2월에 55로 크게 회복되었다.
- 이에 따라 Hong Kong's Hang Seng index는 0.78%, Hang Seng Tech index는 2.21%로 거래중이다. Shanghai Composite도 0.54%. The Nikkei 225 는 1.56%.
- 호주 the S&P/ASX 200는 0.39%, 한국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1.93%를 기록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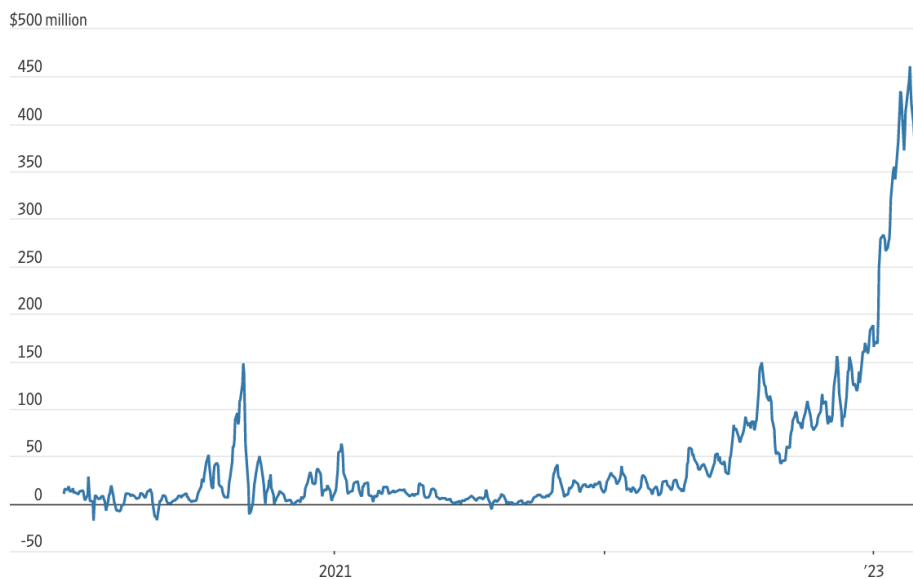
CNBC 기사

## WSJ: Tesla Stock Is More Popular Than Ever Among Individual Investors

### 테슬라 주식, 개인투자자에 더욱 인기

-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책에 달라붙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입 총액은 1백36억 달러. 작년 전체 1백70억달러에 거의 맞먹어 규모다.
- Tesla 투자자는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들은 작년에 주가가 폭락할 때 저점 매수로 경쟁했고 1월 3일 바닥을 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입했다.

Net purchases of Tesla by individual investors, five-day moving average



Source: Vanda Research

WSJ 기사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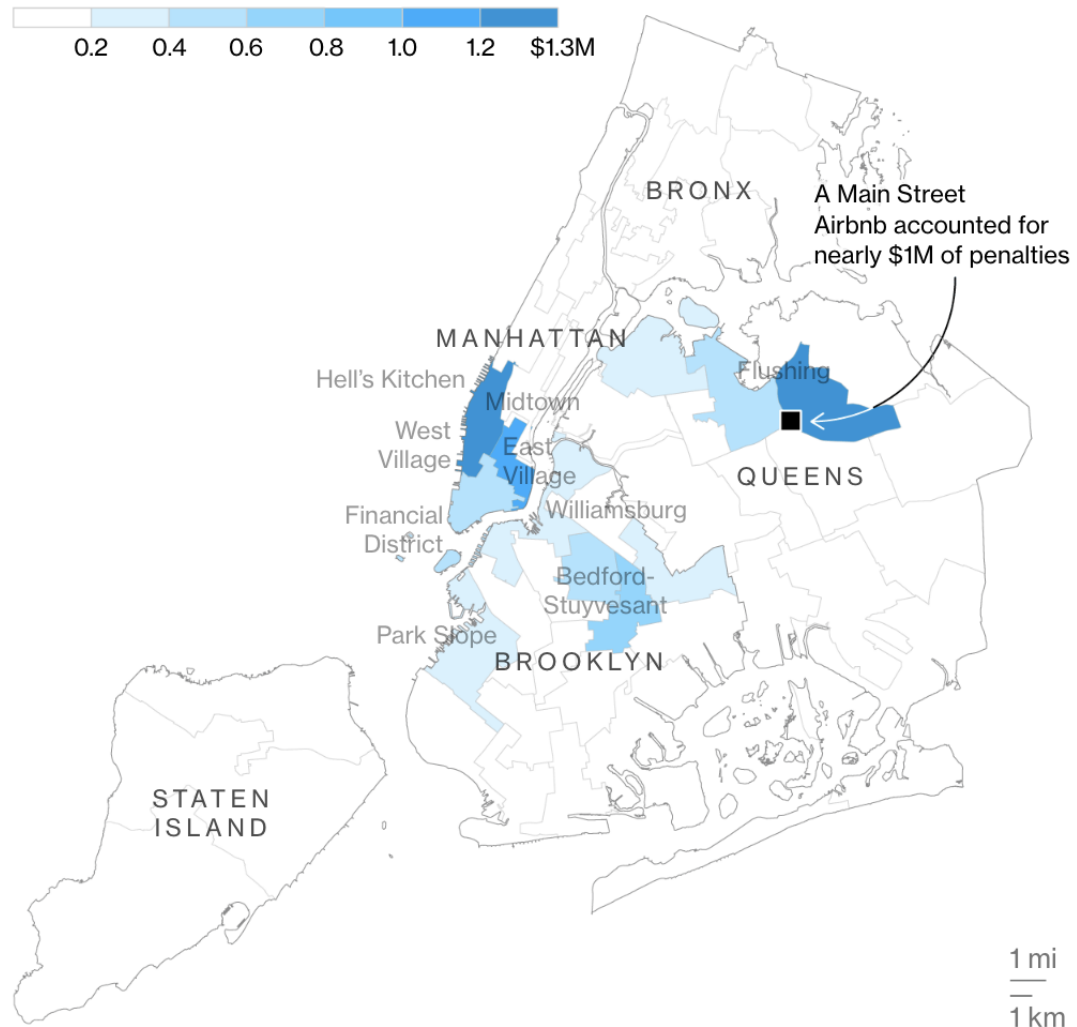
**Bloomberg: An NYC Airbnb Racked Up \$1 Million in Fines. New Rules Would Block the Listing**

**특정 뉴욕시 Airbnb 호스트, 1백만불 벌금 물어**

- Airbnb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호스트의 개별 단기 임대료가 많은 상황이다. 해당 집을 불법적인 Airbnb 주거시설로 이용한 호스트가 벌금 \$984,000을 물게됐다. 계속되는 불법 행동 때문에 벌금이 쌓인 것.
-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룰은 에어비앤비 또는 기타 플랫폼에 등록하려는 호스트는 뉴욕시에 등록하고 운영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 당연히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예약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시정되지 않은 화재 규정 위반 또는 퇴거 명령이 있는 주택 건물은 등록 자격이 없다. 아래 지도는 벌금 많은 지역 분포도

**Chelsea, Hell's Kitchen and Flushing Drew Highest Penalties**

Short-term rental penalties in 2021, by council district



Source: NYC Office of Special Enforcement

## Bloomberg 기사

**[부동산]****CNBC: Mortgage rates jump back over 7% as inflation fears drive yields higher****모기지율 7% 또 넘겼다...인플레 우려 탓**

- Mortgage News Daily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이번주 목요일 7.1%로 뛰어 7%대를 다시 넘겼다. 인플레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수익률도 오르고 있다.
- 모기지율은 작년 10월 7%를 넘기며 20년래 최고치를 찍은 뒤, 인플레 완화에 따라 다소 내려가면서 올해 1월 중순 6%까지 떨어지며 주택 구매 계약이 크게 증가했었다.
- 하지만 주택 구매 증가, 높은 금리,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며 주택 구매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CNBC 기사

**[미·중 갈등]****JP 모건 보고서: Geopolitical Perspectives: The next phase in US-China rivalry****지정학적 관점 - 미·중 갈등의 다음 단계는?**

1. 미중 긴장 관계는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대만 해협과 남지아해를 둘러싼 우연한 '사건 갈등' 리스크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2. 물론 대만 문제가 미중간의 지정학적 긴장의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대비한 신중한 분위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올해 조용한 상황이 될 수 있다.
3. 미국은 AI와 컨텀과 같은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된 외부 투자 감시(투자 제한)의 첫단계로 4월에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고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다른 첨단 IT 산업으로의 자본 투자 제한까지는 적용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명령의 범위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대신에 기업들은 AI와 컨텀 관련 거래는 보고해야 한다. 그런 후에 연방의회는 미국의 해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와 유사한 위원회 발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4. 이번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 치명적인 무기들의 지원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왜냐하면 이에 따른 미국과 서구로부터의 제재 압력 비용이 무기 지원 혜택되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5. 이들에 따르면, 미국과 서구가 중국이나 대만 정책의 모든 측면에 동의하지는 않다는 것. 그러나 서구가 이해하는 사항은, 잠재적인 대만 봉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글로벌 경제 리스트가 러시아로부터의 피해 보다는 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6.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국의 이른바 평화 방안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는 입장만 역할만 할 것 같다.

7. 중국과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관계는 국가간 마다 서로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일한, 아시아 NATO 그룹 형성 신호는 없다. 중국은 일본과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반면, 호주에 대해 최근에 무역 장벽을 풀고 있다.

8. JP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예상보다 빠른 재오픈닝으로 올해 GDP는 5.6% 예상된다. 작년엔 3% 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 효과가 다른 이머징마켓에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는 적을 것이며 민간 투자 흐름이 반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CNBC: iPhone supplier Foxconn will build a factory in India, moving away from China: Report**

#### **아이폰 공급업체 Foxconn, 중국에서 떨어진 인도에 공장 예정**

- 아이폰 공급업체 Foxconn는 중국으로 부터 벗어나는 전략으로 인도의 Bengaluru에 3백 에이커의 건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7억불 규모.
- 이같은 규모는 이 회사가 인도에 시행하는 가장 큰 투자 규모중 하나다. 종업원 규모는 10만명 정도 된다.

CNBC 기사

### **[글로벌 경제]**

### **WSJ: ECB's Wunsch Sees 4% Rates Possible If Inflation Stays High**

#### **유럽중앙은행 관리, "금리 4% 도달할 듯"**

-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회의 위원인 Pierre Wunsch는 물가 압력이 계속 될 경우 금리가 4%를 찍을 것이라는 시장의 베팅이 맞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벨기에 은행 총재도 말고 있는 그는 에너지와 식품과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언급하면서 "차입 비용이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지는 핵심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크게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 Euro-Area Core Inflation Hits Record ...and headline rate slows less than forecast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Work Phones Make Comeback as More Employers Ban WhatsApp, TikTok 돌아오는 업무용 휴대폰...”WhatsApp, TikTok 쓰는 회사 추세 때문”

- 팬데믹 이후 WhatsApp, TikTok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 지고, 해당 앱들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마련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 일과 업무 사이를 분리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Verizon Communications Inc.와 Charter Communications Inc. 두 기 업은 지난해 업무용 전화 고객이 5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 모든 일을 하나의 휴대폰에서 해결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지면서 사라졌던 업무 전용 기기가 1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 WSJ: Macy’s, Best Buy Sales Decline, Reflecting Shopper Pullback Macy’s, Best Buy 매출 감소...소비자 인플레 압박 느낀다

- Macy’s, Best Buy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이 쇼핑객에 게 압박을 가하면서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소비자 들의 상황이 작년보다도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 미국 최대 소매업체의 CEO들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매장을 찾고, 더 작 은 크기의 제품을 사며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Walmart

Inc., T.J. Maxx, Burlington Stores Inc. 등의 저가 브랜드들이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 Macy's의 분기 수익은 5억 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지만 분석가들의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치이며, Best Buy는 전자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 감소로 인해 최근 분기 매출이 10%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WSJ 기사

### Reuters: Costco misses quarterly revenue estimates as demand slows for discretionary goods

코스트코, 분기 수익 예상치 미달했다...임의재 수요 둔화 탓

- 코스트코가 이번주 목요일 발표를 통해 2분기 수익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높은 금리와 치솟는 식품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필수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면서 완구, 전자제품, 가정용품, 보석과 같은 고가 임의재의 수요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코스트코의 2분기 순이익은 1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3억달러보다 증가했다. 또 마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멤버십 분기 수입은 전년 9억 6천7백만 달러에서 10억 3천만 달러로 늘었다.

Reuters 기사

### WSJ: Verizon Shakes Up Executive Team After Tough Year

Verizon, 힘든 한 해 넘긴 뒤 임원진 “물갈이”

- Verizon이 경쟁사인 AT&T, T-Mobile US Inc.와의 가입자 기반 유지 경쟁으로 고군분투하며 한 해를 보내면서, 소비자 부문에 새로운 최고 책임자를 지명하고, 기존의 재무 책임자가 사임하는 등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
- Verizon은 가입자 수 면에서 미국 최대의 휴대전화 사업체이지만, 지난 몇 년간 경쟁사에 입지를 빼앗기고 있다. 경기가 나빠졌던 지난 3개월간은 소비자 사업이 너무 뒤늦게 반응했다는 평가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달러화 가치 2월 2.7% 상승... '반등 일시적' 관측도"

"FOMC 회의와 파월 의장 발언, 2월 고용·물가 지표 등 주시"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세를 그리던 달러 가치가 지난달 2% 이상 반등한 가운데, 향후 달러화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달러화 가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1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물가·고용 지표가 다시 호조를 보이자 연준의 통화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되살아났다.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2일 100.820으로 바닥을 친 뒤 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56분 현재 104.771로 올랐다. 2월 한 달간 달러 지수의 상승률은 2.7%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